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석유수급 동향

이 자료는 최근 일본석유연맹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제국의 석유시정 보고서」중 총괄부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註〉

I.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급

1. 수요동향과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BP 통계에 의하면 '85년 1,043만 b/d인 역내 수요가 '90년에는 1,360만 b/d로 약 300만 b/d 증가하였다. 이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이 기간중 전세계 석유수요 증가율 1.8%(5,912만 b/d → 6,468만 b/d)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 臺灣, 泰國 등은 80년대 후반부터 10%를 초과하는 대단히 높은 수요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표-3〉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역의 수요전망으로, '89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5.0%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90년부터 '95년까지는 300만 b/d, 나아가 이후 2000년까지는 250만 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중간유분은 '95년까지가 연평균 6.0%, 그 이후에도 4.6%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동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重油는 말레이시아 등에서 발전소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 증가율은 3.2%로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료 전환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석유수요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전망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방문한 메이저계 기업에서도 이 지역수요를 연료유(LPG, * 원유 生燒 제외) 배이스로 '89년 약 1,050만 b/d에서 '95년에는 1,300만 b/d 정도로 약 250만 b/d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원유생소: 저유황 원유를 연료로 직접 사용하는 것

2. 정제능력과 전망

이같은 수요 수준에 비하여 '90년말의 역내 석유 정제 능력은 1,328만 b/d 이었다(표-4 참조). 이것은 '90년 수요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지만 실제

〈표-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요추이

(단위 : b/d)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증가율(%)
수요	10,430	10,940	11,265	12,130	12,880	13,600	5.5

〈자료〉 BP

<표-2>

조사대상국의 개요(1989)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中國	濠州	泰國	臺灣	韓國	印度	日本
면적 (万km)	192.0	33.1	0.1	959.7	768.2	51.3	3.6	9.8	328.8	37.8
인구 (万人)	18,770	1,670	260 (1988)	111,820 (1990)	1,680	5,590	2,020 (1990)	4,330	84,975 (1990)	12,274
GDP (억달러)	939	376	239 (1988)	N.A.	2,830	697	162 (1990)	2,120	3,330	29,203
1인당GNP (달러)	500	2,251	9,192 (1988)	N.A.	16,850	1,247	7,990 (1990)	4,998	392	23,793
경제성장률 (%)	5.7	7.7	9.2	4.0	4.1	10.8	7.2	6.5	5.0	4.7
대외채무 (억달러)	550	163	52 (1988)	510	1,116	185	10	305	487	-

로는 가동을 저하와 유종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中東을 비롯한 역외로부터 100만 b/d 이상의 제품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쿠웨이트 정유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어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역내 최대 정제기지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각 정유회사들이 풀 가동을 계속하였으나 특히 걸프위기가 최고도에 달한 '90년말에는 이 시장의 현물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지역 정제 밸런스가 매우 타이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역내에는 정유공장 건설계획이 많이 있어 수요증가에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로 자금문제와 메이저 등을 포함한 Joint Venture의 참가기업간의 조정이 어려워 건설에는 예상외의 난항을 겪고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장래의 정제능력예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95년까지의 신·증설 합계로 약 200만 b/d의 능력확장이 예상되며 또 메이저 급 기업에서도 '95년까지는 198만 b/d가 증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강폭은 장래의 수요증가폭과 비교해 보면 겨우 수요증가분에 불과하여 점점 부족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은 정제시설의 타이트한 균형상태가 역내에서는 '95년경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역내의 정제능력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완적 공급원인 中東정유공장의 동향, 즉 쿠웨이트 정유공장의 복구상황이나 사우디·이란 등의 정유공장 신설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3>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전망

(단위: 천 B/D)

	1989						1995						2000								
	니프타	취발유	중유	연료유	小計	기타	計	니프타	취발유	중유	연료유	小計	기타	計	니프타	취발유	중유	연료유	小計	기타	計
인도네시아	-	101	358	51	513	36	549	-	133	604	109	866	53	919	-	203	815	123	1,141	68	1,209
말레이시아	-	61	99	49	209	19	228	-	64	108	46	218	39	257	-	65	110	26	201	53	254
싱가포르	25	11	72	220	328	19	347	30	15	80	185	310	39	349	30	18	86	160	94	41	335
中國	53	453	709	495	1,710	225	1,935	80	660	1,064	589	2,393	405	2,798	180	895	1,557	627	3,259	479	3,738
濠州	-	297	229	42	568	88	656	-	321	277	31	629	131	760	-	331	323	36	690	146	836
泰國	-	57	186	63	306	28	334	-	91	361	165	617	44	661	-	122	509	181	812	62	874
臺灣	76	85	96	209	466	80	546	115	97	115	179	506	99	605	128	114	169	170	581	110	691
韓國	94	50	299	230	693	94	787	263	124	556	498	1,461	189	1,650	275	182	687	557	1,701	229	1,930
印度	82	80	659	173	994	99	1,093	142	119	947	203	1,411	164	1,575	188	159	1,263	232	1,842	211	2,050
小計	330	1,195	2,707	1,555	5,787	688	6,475	650	1,644	4,112	2,005	8,411	1,163	9,574	801	2,089	5,519	2,112	10,521	1,399	11,920
기타	542	941	1,998	1,336	4,817	902	5,719	610	1,086	2,359	1,490	5,745	993	6,738	560	1,172	2,838	1,277	5,847	1,067	6,914
計	872	2,136	4,705	2,891	10,604	1,590	12,194	1,260	2,730	6,671	3,495	14,156	2,156	16,312	1,361	3,261	8,357	3,389	16,368	2,466	18,334

3. 수급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요에 대해서는 과거 수년간의 증가추세를 장래

에도 그대로 반영한 형태로 예측한 것이 많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그 근거가 되는 경제전망등

〈표-4〉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

(단위 : 천 B/D)

	OGJ		중서문화센터				PAJ				
	1990	1990	1990~95 증 설	1995	1995이후 증 설	2000	1990	1990~95 증 설	1995	1995이후 증 설	2000
인도네시아	814	832	+ 125	957	+ 380	1,337	830	+ 195	1,025	+ 380	1,405
말레이시아	210	209	+ 100	309	+ 130	439	215	+ 125	340	+ 100	440
싱가포르	878	830	+ 70	900	-	900	1,045	+ 90	1,135	-	1,135
中國	2,200	2,365	+ 413	2,777	-	2,777	2,686	+ 360	3,046	+ 404	3,450
濠洲	706	673	-	673	-	673	720	-	720	-	720
泰國	221	222	+ 267	489	+ 325	814	245	+ 334	579	+ 170	749
臺灣	543	600	+ 120	720	-	720	610	+ 110	720	+ 100	820
韓國	867	887	+ 310	1,197	-	1,197	1,035	+ 200	1,235	-	-
印度	1,122	1,080	+ 238	1,318	+ 120	1,438	1,037	+ 208	1,250	+ 180	1,425
小計	7,561	7,698	+ 1,643	9,340	+ 955	10,295	8,423	+ 1,602	10,045	+ 1,334	11,379
기타	5,042	4,855	+ 402	5,258	+ 200	5,458	4,855	+ 402	5,258	+ 200	5,458
計	12,603	12,553	+ 2,045	14,598	+ 1,155	15,753	13,278	+ 2,024	15,303	+ 1,534	16,837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산유국이
지만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순수입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수입의 감소, 두
절 상황하에서도 종래와 같은 석유수요 증가가 계속
될 수 있을지는 크게 의문이 잔다.

또 수요증가가 계속되는 석유수입국에 대해서도
외화 밸런스 악화에 따라 종전과 같이 석유수입이
계속 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시장이 극
히 타이트해지고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국면으로 나
갈 경우에는 고가의 석유가격에 불구하고 종전과 같
은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한편 선진국과는 달리 역내의 각국은 석유시장에
대하여 상당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석유가
격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에 잔존하고 있으며
이같은 규제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수급조장
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대만은 걸
프 위기시 제품가격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같
은 규제는 국제적인 석유시장의 흐름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고립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동향을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급 동향을 예측할 경우 종래의 경향을 그대로
연장하여 장래를 예측하는 수법을 택하면 상당한 위
험을 갖게 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원유 밸
런스에서도 일부 산유국 특히 中國과 인도네시아가
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中東에서의

수입이 늘어나고 자국의 저유황원유 수출도 계속되
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수입국으로
되는 것이 곧 해당국의 수출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베트남이나 파푸아뉴기니등
역내 신흥 산유국의 성장도 고려할 경우 이같은 변
화가 日本의 원유선택에 반드시 대폭적인 변경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다.

II. 조사결과 개요

1. 에너지·석유정책

(1) 에너지·석유정책

이번의 조사대상국은 크게 석유생산국과 소비국
으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中國, 濠洲 등이며, 후자에는 싱가포르, 臺灣, 한국
등이다. 또 태국이나 인도와 같이 자급자족은 불가
능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석유수요는 국내 자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한편 국가형태로는 濠洲나 싱가포르와 같이 구미
제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정치·경제구조를 확립한
국가도 있으며 이를 뒤따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臺灣, 한국, 泰國과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는 中
國과 인도도 포함하였다.

이같은 자원 보유량과 경제발전의 차이는 각국의
에너지·석유정책에 대한 자세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산유국의 석유정책은 주로 산유정책이며 국내시

〈표-5〉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수요구조

(단위: 천석유환산 B/D)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中國	濠洲	泰國	臺灣	한국	인도	計	中國제외시
석탄	73 (7.7)	30 (7.8)	- (-)	- (76.0)	738 (40.1)	55 (10.7)	238 (23.9)	480 (27.2)	1,880 (51.2)	16,686 (46.6)	6,308 (28.4)
석유	624 (65.6)	225 (59.3)	125 (100.0)	- (17.1)	672 (36.6)	330 (64.1)	546 (54.7)	941 (53.3)	1,108 (30.2)	13,004 (36.3)	10,736 (48.3)
천연가스	192 (20.2)	103 (27.2)	- (-)	- (2.0)	320 (17.4)	104 (20.2)	38 (3.8)	53 (3.0)	298 (8.1)	2,634 (7.4)	2,370 (10.6)
원자력	- (-)	- (-)	- (-)	- (-)	- (-)	- (-)	141 (14.2)	251 (14.2)	384 (10.5)	1,400 (3.9)	1,400 (6.3)
기타	62 (6.5)	22 (5.7)	- (-)	- (4.9)	109 (5.9)	26 (5.0)	34 (3.4)	42 (2.4)	-	2,058 (5.8)	1,428 (6.4)
計	951 (100.0)	380 (100.0)	125 (100.0)	- (100.0)	1,839 (100.0)	515 (100.0)	998 (100.0)	1,766 (100.0)	3,670 (100.0)	35,782 (100.0)	22,242 (100.0)

장은 국영 석유기업이 독점하여 압도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비국에서는 복수의 석유기업이 참가한 케이스가 많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 통제하는가가 석유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 산유국의 대다수는 풍부한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의 활용이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정세와의 관계에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 濠洲와 싱가포르는 석유수요의 증가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급속한 수요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泰國, 한국과 같은 국가는 석유를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규제완화는 겨우 시작단계에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中國등은 정치체제의 문제도 있어 완전히 정부에 의하여 석유시장이 관리되고 있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연·무연휘발유의 도입이나 저유황경유·重油의 도입등이 시작되었다.

(2) 석유규제와 외자규제

이번 조사대상국중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가장 진전된 곳은 싱가포르이었다. 싱가포르는 정제, 판매, 트레이딩등 석유에 관한 활동은 거의 모든 규제가 없으며,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89년부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석유선물시장도 발족되었다.

다음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濠洲,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들 국가는 상당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품가격을 정부가 설정하

고 있으며 정제·판매활동에 관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하여 臺灣, 인도네시아, 中國은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모두 전면적인 정부통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매우 한정적인 부문에 한해 외국자본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최근까지도 이같은 국가들과 같은 양상으로 석유산업이 엄격한 규제하에 있었지만 최근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시장에의 외자참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으며 외자참입이 가능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한편 대만, 인도네시아, 中國은 완전히 국영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印度와 한국은 정부의 통제가 강하지만 외자를 완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1차에너지 수급동향

이번에 방문한 조사대상국의 대부분은 석유가 1차에너지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100%인 싱가포르 이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산유국은 물론 대만, 한국등도 1차에너지의 55~65%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濠洲, 印度는 석유보다도 석탄에 대한 의존이 크며 그 중에서도 中國은 에너지의 약 3/4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표-5 참조>.

그러나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泰國등 3개국은 이미 국내 천연가스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90년대 중반에는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석유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게다가 臺灣, 한국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부

터 LNG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역내 천연가스의 세어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석유는 重油 수요가 천연가스로 전환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송용 연료는 건조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국에서 원자력을 도입한 국가는 臺灣, 한국, 태국 등 3개국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 도입한 臺灣, 한국에서 반대운동이 강하여 증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같이 국도가 협소하여 도입여지가 없는 케이스도 있다. 따라서 원자력이 급속히 역내 주요 에너지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1차에너지 구성은 역내 전체로는 석탄 46%, 석유 36%, 천연가스 7%의 순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中國의 영향이 크며 中國을 제외한 구성비는 석탄 28%, 석유 48%, 천연가스 11%이다.

3. 석유수요동향

(1) 원유수급동향

'90년 역내 석유수요 1,360만 b/d에 대해 원유 생산량은 657만 b/d이었다. 원유생산량은 '85년 579만 b/d에서 13.6% 증가하였지만, 이 기간중 수요가 30.4% 증가하였기 때문에 역외의존도는 44.5%에서 51.7%로 증가하였다. 그 대부분은 中東산유국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

유공급에 차지하는 中東의존도는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베트남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역내 신흥 산유국의 대두가 기대되지만 역내 2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와 中國의 생산이 침체되고 또한 수요는 건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中東을 중심으로 한 역외 의존도는 더 한층 높아질 것 같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아스팔트나 윤활유 제조를 위하여 계속 中東원유를 수입할 것이며 또 공해대책상 유리한 저유황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왕성할 것으로 보여 역내에서의 원유수출이 급속히 감소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석유수요동향

역내 석유수요는 과거 5년간 매우 높은 증가를 보였다. '85년부터 '90년까지의 5년간 역내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5.5%로 이 기간중 세계 평균인 1.8%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태국, 대만, 한국은 연평균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한국은 5년동안 수요가 거의 배로 증가하였다 <표-6>.

그러나 이같은 수요증가 경향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86년의 원유가격 폭락에 따라 석유수입국인 臺灣, 한국등의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산유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석유수요는 오히려 일시적인 정체를 기록하였다. 또 싱가포르는 경제의 성숙에 의하여 濠洲는

<표-6>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 추이

(단위 : 천 B/D)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증가율(%)
인도네시아	460	465	500	525	560	640	6.8
말레이시아	185	180	180	190	200	220	3.5
싱가포르	225	265	270	315	360	370	10.5
中國	1,810	2,010	2,110	2,210	2,300	2,275	4.7
濠洲	590	610	635	650	675	685	3.0
美國	235	240	270	305	365	405	11.5
臺灣	330	375	395	475	515	540	10.4
韓國	515	570	605	720	830	1,020	14.7
기타	6,080	6,225	6,300	6,740	7,075	7,445	4.1
아시아·태평양지역計	10,430	10,940	11,265	12,130	12,880	13,600	5.5
세계計	59,115	60,785	61,840	63,590	64,805	64,680	1.8

<자료> BP

경기침체에 따라 각각 80년대 후반에 석유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앞으로의 증가는 '95년까지 5.0%,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2.9%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같이 비교적 높은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상정하는 국가도 있고 또 中國이 경제정책에 따라서는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정제시설의 현황과 증강계획

'90년말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정제 능력은 1,328만 b/d였다. 이 수준은 같은해의석유수요 1,360만 b/d를 하회하는 것으로 약 100만 b/d 정도 역외로부터의 제품수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역내 최대 정제기지인 싱가포르에서 정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유공장이 없는 국가들이 위탁정제를 실시하였지만 수요 규모의 확대와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경향은 '90년 걸프전쟁에 따라 쿠웨이트 정유공장의 파괴로 더 한층 가속화되었지만 계획에서 실현단계에 들어간 정유공장은 아직 많지 않다. 그 배경은 건설에 따른 자금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Joint Venture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여 참가기업간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며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

가 남아 있어 정부가 기업의 결정에 간섭할 여지가 많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전제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에서는 '95년까지 역내에 약 200만 b/d의 설비 신설·증강이 행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표-4>. 이 중에는 원래 불확정한 요소가 남아 있는 것도 포함한 것이지만 만일 계획대로 모두 실현되더라도 동기간의 예상수요 증가량인 270만 b/d를 하회하기 때문에 역내 제품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져 中東을 중심으로 역외로부터의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4) 제품규격 강화 동향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환경문제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무연화나 경유·중유의 저유황화가 시작되었다. 이미 濠洲, 태국, 대만, 인도 등에서 휘발유의 저연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유의 유황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3%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2% 수준을 표준으로 택하고 있으며 나아가 1% 수준대로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다 <표-7>.

4. 국내석유시장

(1) 석유가격동향

이번 조사대상국 중에는 석유제품 가격을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대다수였다.

<표-7>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제품 품질

	국 별	품 질		실시시기
		현 재	계 획	
휘 발 유	말레이시아			1990
	싱가포르	0.15 G/L	無 鉛	1991. 1/4
	홍 콩			
	泰 國	0.40 G/L	無 鉛	1991. 2/4
	REGIONAL	0.40 G/L	0.15 G/L	1992/95
		0.15 G/L	無 鉛	1992/95
경 유	벤 켄	5~7%	5% MAX	1993
	泰 國			1991/93
	말레이시아	1.0%S	0.5%S	1993
	REGIONAL			1995
연 료 유	싱가포르	0.5%S	0.2%S	1993
	泰 國	2.0%S	1.0%S	1990
		3.5%S	3.0%S	1993
	REGIONAL	3.0%S	<2.0%S	1990

인도네시아, 中國, 인도는 국가가 완전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격을 국제수준 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濠洲, 말레이시아에는 최고가격제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거의 그 수준으로 국내가격이 통일되어 있는데 반하여 濠洲는 시장경쟁에 따라 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泰國과 한국도 정부에 의하여 제품 가격이 통제되고 있지만 금년 들어 일부유종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태국정부는 석유제품의 도·소매가격을 모두 규제하고 있지만, 금년 6월 이래 소매가격은 자유화되어 도매가격에 대한 최고 가격제만 남아 있다. 또 한국도 '89년 고급휘발유와 나프타가격을 자유화 한 이후 계속하여 금년 9월부터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자유화 하였다. 그러나 양국에서는 각각 석유기금(Oil Fund)과 석유사업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 설정되어 있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방지하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대상국 중에서 완전히 가격이 자유화 된 곳은 싱가포르 뿐이다. 싱가포르에서는 '89년 정부에 의한

통제가 철폐된 이후 가격은 완전히 석유기업의 판단에 따라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품가격의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한 수단으로서 일정 공식에 의한 산정결과를 공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소매 가격이 그 공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가격은 때에 따라 정치적인 요소 등도 포함되어 결정되지만 대체로 국제시황에 근접하고 있다.

(2) 국내 유통체제

조사 대상국내 외국계 기업(소위 메이저등)이 자신의 폴 사인을 게시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濠洲, 태국이다. 또 복수의 국내기업만이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인도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국영석유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대만에서도 일부 주유소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주유소의 23%가, 또 臺灣에서는 총 주유소의 40%가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주유소도 모두 국영 석유회사의 마크를 게시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표-8>

국내 석유유통구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中國	濠洲	泰國	臺灣	한 국	인 도
정유회사	1	6	6	1	5	4	1	5	3
주 유 소	1,229	1,578	243	5,000	9,000	3,433	1,000	3,915	14,600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품 가격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부문의 경쟁은 그다지 치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합리화도 크게 진전되어 있지 않다. 濠洲의

주요소만이 유일하게 구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90% 이상이 셀프 서비스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

□ 도서안내 □

석유협회 창립10주년 기념

석유산업의 발전사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엮음 -